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12.80원 상승한 1,219.30원에 마감

13일 달러-원 환율은 증시 패닉에 따른 위험기피심리로 전 거래일 대비 12.80원 상승한 1,219.3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215.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이후 환율은 리스크 오프에 추가 상승하여 1,226.00까지 고점을 높였다. 이후 당국의 구두개입 및 시장 안정조치가 나오면서 환율은 상단이 제한되면서 환율은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며 1,219.3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시장 평균환율은 1,222.20원에 고시되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54.76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15.00	1226.00	1212.00	1219.30	1222.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46.76	1169.57	1133.82	1138.84

금일 전망

연준, 100bp 대규모 긴급 금리인하... 1,200원 초중반 등락 예상

금일 달러원 환율은 연준의 100bp의 대규모 긴급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재개로 인한 달러 약세를 반영하며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4.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219.30원) 대비 8.05원 하락한 1,207.2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미 연준이 두 번째 긴급 FOMC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연준은 ① 100bp규모의 금리 인하(인하 후 0.0 ~ 0.25%) ②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 프로그램 재개(국채 및 MBS 매입) ③ 경제 개선시까지 제로금리 수준 유지 등을 결정하였으며, 금일 환율은 미 연준의 대규모 금리인하에 따른 달러 약세를 반영하며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연준 금리인하에 따라 S&P 선물지수가 4%가까이 폭락함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외인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어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전히 바이러스 불확실성도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95.50 ~ 1203.5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1628.51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05원 ↓

■ 美 다우지수 : 23185.62, +1985p(+9.3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1.8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51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